

# 허석 순천시장 “시민 안전 우선...더 편안한 안전도시 만들 것”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슬로건  
공직 청렴 상징 ‘팜마비’ 취임선서

순천시는 지난 2일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선 7기 허석 시장이 취임했다. 당초 순천시는 전임 조중훈시장을 비롯한 시민 참여 명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예정이었

으나 2일과 3일에 태풍 “쁘리베룬” 의 상륙에 대비해 재난재해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석시장은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순천민국가정원의 현충정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공직자 청렴의 상징인 팜마비 앞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취임식을 대신해 7월 직원정례회에 참석한 허석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재난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 “단결과 화합을 통한 팀플레이에 강한 조직을 만들 것”, “공정한 인사를 통한 청렴한 조직을 만들

어 갈 것” 등을 시청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오전 일정을 소화한 허석시장은 시청내 소통하우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기지실과 공무원노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폭넓은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허석 시장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 1일 새벽부터 재난 현장을 점검과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더 편안한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정현복 광양시장 “전국서 가장 살기좋은 행복도시 오래도록 꿈꿔”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슬로건  
인구 증가 · 기업 유치 · 투자 가치 ↑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정현복 광양시장 민선7기 첫 행보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정 시장은 “이 순간은 15만 광양시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열원을 뜨겁게 확인하는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다. 민선7기 4년의 시정을 다시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지난 6. 13 지방선거에 나섰던 지역의 모든 분들께 축하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5대 핵심공약으로 첫째,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박차, 둘째, 중마·금호권역 이순신대교 해변 공원을 조성 셋째, 전기자동차, 드론 등과 같은 최첨단

산업 유치, 넷째, 섬진강 권역에 뱃길 복원 미리나항 만들어 영·호남 통합 상진지대 구축, 다섯째 광양읍 목성지구 개발 박차 등 인센지구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것. 또한 민선 7기 주요 시정 방향은 첫째,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 초석 마련 둘째, 미래를 대비 전략산업 적극 육성, 셋째, 시민 모두 행복한 건강복지도시 실현, 넷째, 매력 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다섯째, 누구나 살고 싶은 부자 농어촌 건설, 여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구축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다. 당초 광양시는 2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민선7기 정현복 광양시장 취임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제7호 태풍 ‘쁘리베룬’ 이 북상함에 따라 취임식을 취소하고 긴급 재난대책 회의로 대체했다. 재난회의에 앞서 먼저 정현복 시장은 시 점선실에서 부시장, 국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를 가졌다.

정현복 시장은 “광양은 저에게 있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삶을 지켜온 영원한 고향이자 공직자의 꿈을 키운 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오래도록 꿈꿔 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1천 4백여 공직자와 함께 정말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늘어나고 기업이 들어오고 지역의 투자 가치가 커지는 큰 성과를 거양했다”면서 “특히, 지난 4년 동안 중앙재원 확보 노력과 경영수익사업 확대, 지방세 증대 등을 통해 광양시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부채는 전액 상환하여 건전재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서 광양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급식봉사원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급식 봉사 활동을 수행했으며, 기지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함께 취임 소감을 밝히고 대화를 나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송귀근 고흥군수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해 인구감소 대책 마련”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 슬로건  
“4년간 귀농 · 귀촌 1000호 달성”

“고흥 원탁회의 를 구성해운영하겠습니다. 막힘 없는 소통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힘들고 외로운 군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고흥의 미래가 있습니다”고 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 슬로건 으로 취임한 송귀근 고흥군수의 강한 의지다. 송 군수는 첫째,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것, 둘째, 따뜻한 맞춤형지로 살기 좋은 고흥 실현.. 셋째, 보고 먹고 자고 가는, 머무는 관광시대 열겠다는것. 또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싸우며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고흥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고흥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인구 관련 특단의 대책과 지금까지 고흥을 떠나가는 사람은 많고 정착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은 적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농어촌이 안고 있는 국가적 과제다”고 말했다. 또한 “고흥군 스스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과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4년 동안 ‘귀농 귀촌 고흥’ 1000호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면서 “정소년이 꿈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명문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과 일자리 알선센터도 만들 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자는 군민을 바라보고 고흥의 주인인 군민을 위해 봉사할은 물론 고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여 우선 군민이 피부로 확 느낄 만큼 친절하여 공직자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대서면 본적으로 대서초등학교 졸업, 광주 살레시오 중 · 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했다. 경력으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79년), 고흥군 부군수, 전라남도 경제정책과장, 지방과장,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자치제도과장,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2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국장),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국장),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1급)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차관보급)을 역임하고 포상으로 흥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내무부장관 표창,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